



국가생존기술 글로벌 리포트

2022년 7월 7일 제9호

웹사이트에서 보기



물

방글라데시가 홍수에 대처하는 법

연간 강우량의 70%가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되는 몬순시절은 늘 남아시아에 재앙을 불러온다. 방글라데시에서 인구 약 6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90%가 이번에도 물에 잠겼고 사망자는 30여 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는 '21년 벨기에와 독일에서 폭우와 돌발 홍수로 사망한 180여 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지구 기온이 1°C 상승할 때마다 몬순 시즌 강우량이 5%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방글라데시는 이미 수해 방지를 위한 최선을 다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때이다.

출처: <https://www.economist.com/the-economist-explains/2022/06/23/how-does-bangladesh-cope-with-extreme-floods>



자원

글로벌 기업들, 숲 복원에 투자

12,000년 전 농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6조 그루의 나무 중 거의 절반이 소실됐으며, 연간 글로벌 GDP의 절반 이상인 44조 달러의 비즈니스가 자연 손실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30개 이상의 기업이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36억 그루 이상의 나무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스트라 제네카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네슬레는 2022년까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 280만 그루를 나눈다고 발표했다. 1조 그루의 나무를 보존, 복원 및 재배한다는 야심찬 글로벌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출처: <https://www.weforum.org/impact/investing-in-trees-restoring-forests/>



재난

기후위기와 집중호우

지난 6월 중국 중남부 지역에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었다. 기후변화에 의한 극단적인 자연재해는 중국 농업지대에서 빈번해졌다. 일부 노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건설 자체와 정부 재난 대응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정부 부처의 협력, 재난 구조자원의 제공, 응급조치 등 중국의 공동비상대응 메커니즘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는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제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대중 참여도 요구된다.

출처: <https://amp.theguardian.com/environment/2021/jul/26/chinese-discuss-role-climate-crisis-china-deadly-floods>



안보

일본, 방위비 확대 등 방위정책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슈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 참의원 선거(2022.7.10. 예정)에서 방위정책이 중요 이슈로 등장했다. 쟁점은 1976년 미키 내각이 설정한 'GDP 1% 방위비' 틀을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하향식 예산할당제도(縦割り)에서 방위 R&D 예산의 실용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173K0R20C22A6000000/>



식량

중동, 스마트 농장 확대로 식량 안보 대응

80% 가까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동 국가들이 식량 안보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50°C까지 오르는 높은 기온과 연평균 강우량 100mm 미만의 물 부족으로 인해 중동지역은 스마트 농장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UAE에 4곳, 사우디아라비아에 1곳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Pure Harvest는 향후 인근 지역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18개월간 농장 면적을 기존의 22헥타르에서 2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6-30/billionaire-olayans-join-funding-for-agritech-firm-pure-harvest>



에너지

'한 우물만 파는' 유럽 에너지 정책

유럽 환경 및 경제 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텍소노미(Taxonomy) 녹색 표기에 반대하였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은 텍소노미의 녹색 표기가 박탈될 경우, EU의 투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현재, 천연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텍소노미의 분류는 7월 첫째 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2/06/14/eu-lawmakers-form-cross-party-coalition-to-block-gas-and-nuclear-from-green-taxonomy/>



인구

이민·난민 인도주의 보호정책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에서 이민 및 보호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미주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해 (1)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원, (2)법적 경로 확장, (3) 인도적 이주관리, (4)비상대응 등이 명시됐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가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에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업을 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확대키로 했으며, 자발적 귀환 지원과 이민자 밀수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강화를 통해 인도적 이주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10/>